

2008 춘하절 상품의 의류용 직물

- 세번수 얇은 천, 인기 계속돼

일본의 2008년 춘하절 의류용 단섬유물은 최근 몇 시즌내내 세번수를 사용한 얇은 천이 주류가 되어 왔는데, 2008년에도 또 주류가 될 것 같다. 그러나 세번수의 얇은 직물은 생산량이 많아, 이들 중에서 어떻게 차별화 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다.

텍스타일 메이커가 2008년 춘하절을 위한 의류용 소재전시회의 집대성이라고도 하는 ‘저팬 크리에이션(Japan Creation ; JC) 2008 춘하’전시회에서는 ‘단골 손님이 요구하는 소재의 방향은 제 각각’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세번수 소재의 인기는 아직도 계속된다.’며, 세번수 소재의 지속적인 수요를 지적하는 경향도 많다.

다만 세번수의 얇은 직물 중에서도, 표면이 플랫(flat)하며, 특징이 없는 것은 멀리 하는 경향이 있다. 세번수 얇은 직물이 오랫동안 호조를 보여, 생산하는 제직공장이 많아지고 있으면서도 어패럴은 무엇이던 차별화를 요구하고 있어 색다른 것, 특징이 있는 것을 찾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여 ‘오미(近江) 직물’은 JC에서 면, 마의 세번수로 짠 고밀도 직물을 제안하였다. 독자적인 가공으로 고밀도인데도 소프트한 느낌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다카하시(高橋) 직물’은 표면 변화가 있는 얇은 직물을 개발하고 있고, ‘도카이 센코(東海 染工)’ 등은 가공공장과의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으로 표

면감이나 촉감을 변화시킨 상품을 다양하게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기무라(木材) 직물’은 실크, 레이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톱사(top絲)를 활용하여 색의 변화로 독특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선염직물을 정리가공하는 ‘반슈직 공업 협동조합(播州織 工業 協同組合)’이 위사로 물결모양(波模様)을 표현하는 독자상품 ‘크러시(crush)’가공으로, 안감이 없는 홑겹의 옷을 다양하게 많이 만들고 있는 것도, 얇은 직물에 대한 계속되는 인기와 그 속에서도 차별화를 의식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주) 크러시 가공 : 최근 일본에서 개발된 가공으로, 얇은 선염직물에서 선염된 위사를 천의 길이 방향으로 여기저기 불규칙적으로 굵어줌으로써, 선염된 위사를 꾸불꾸불하게 만들어 물결모양을 나타내는 가공